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 기념식



“아버님! 이제 이후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기필코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 영원한 본향원에서
그동안 외로웠던 하나님, 하늘부모님을 위로하시며
송영의 대상으로 자유로워지시기를 간구합니다.”

각계 대표 경배를 3단계로 진행, 김정은 제1위원장 추모 메시지 대독



1. 천주성화 3주년 기념경배식을 주관하시는 참여머님
2. 사회를 하고 있는 유경석 회장
3. 보고기도를 하고 있는 양창식 특명총사
4. 말씀훈독을 하고 있는 정원주 수석보좌관
5. 특별보고를 하고 있는 박상권 회장
6. 천주성화 3주년 기념 경배식을 주관하시는 참여머님
7. 성초를 점화하고 계시는 참여머님과 문선진 세계회장
8. 기념경배식에 참석한 참가정
9. 기념경배식에 참석한 세계 대표지도자들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 기념경배식이 천력 7월 17일(양 8.30) 오전 7시, 참부모님을 모시고 참가정을 비롯한 국내외 귀빈, 기관기업체장, 전국 목회자, 종친 및 원로식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정궁 박물관 대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경배식은 참부모님께서 입장하시어 성초를 점화하심으로 전체의식이 시작됐다. 참부모님께서 천주성화 3주년을 맞아 각계 대표의 경배를 3단계로 나누어 ①영육계 참가정 대표 경배, ②세계선교국 대표자(대륙회장 및 특명총사) 경배, ③영·육계 전체 축복가정 경배 등의 순서로 진행하게 하셨다. 이러한 경배식의 변화는 ①영·육계를 주관하시는 참부모님, ②천일국 3년의 결실, ③천지인참부모 실체시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경배식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경석 한국회장의 사회로 참부모님 입장, 경배, 성초점화, 개회선언, 천일국가 제창, 각계 대표의 경배식, 가정 맹세, 양창식 특명총사의 보고기도, 정원주 수석보좌관의 말씀훈독, 성찬,

영상시청, 박노희 특명총사 선창의 억만세삼창, 참부모님 퇴장, 폐회선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양창식 특명총사는 보고기도에서 “하나님 해방과 인류구원의 섭리적 사명을 다 이루시고 본향원에 안착하신 억조창생의 만승군황이시오, 천일국의 진성덕황제이신 문선명 천지인참부모님의 성화 3주년을 맞이하여 참여머님을 모시고 Vision 2020을 향해 더욱 힘찬 발걸음을 내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다.

말씀훈독 시간에 정원주 수석보좌관은 「참부모경」 제13장 복귀섭리 완결과 천일국 정착 중 ‘참아버님의 전통상속’에 대한 말씀을 훈독했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중단 없는 전진’을 선포하시고 신종족메시아의 사명완수를 강조하신 참여머님 말씀을 중심으로 편집한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말씀영상이 상영됐다.

유경석 한국회장은 경배식 거행에 앞서 “참아버님 천주성화 3주년을 맞아

통일가의 축복가정과 식구 모두가 참부모님과 심정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고, 유업으로 주신 신종족메시아의 사명을 2020년까지 완수할 것을 결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배식 전에 특별보고의 시간에는 어려워진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다녀온 박상권 회장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추모 메시지를 대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북한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양건 위원장의 이름으로 화환을 보내왔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추모 메시지]

“문선명 선생의 유가족들에게, 세계평화연합 전 총재 문선명 선생의 서거 3년에 즈음하여 한학자 총재님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문선명 선생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나는 한학자 총재와 유가족들이 문선명 선생의 유지를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 기념식 성대하게 개최

참어머님 깊은 심정과 말씀으로 은혜롭게 기념식 주관, 전 세계 지도자 및 식구 등 3만여 명 참석



문선명선생의 유가족들에게

세계평화연합 전 총재 문선명선생의 서거 3년에 즈음하여 한학자총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문선명선생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나는 한학자총재와 유가족들이 문선명선생의 유지를 계속 이어나가기 바랍니다.

김 정 은
주제 104(2015)년 8월 30일



1. 천주성화 3주년 기념식을 주관하시는 참어머님
2. 헌화를 하시는 참어머님
3. 헌화를 하시는 참가정의 자녀님과 손자·손녀님

4.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추모 메시지
5. 천주성화 3주년 기념식 전경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 기념식이 천일국 3년 천력 7월 17일(양 8.30) 오전 9시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참어머님을 모시고 참가정과 세계 전·현직 국가수반 및 국내외 주요 인사를 비롯해 통일가의 축복가정, 식구, 평화대사 등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성스럽게 봉헌되었다. 이날 행사는 전 세계 194개국에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참부모이시기에 결단하고 이루신 역사적 위업

참어머님께서 기념식 말씀을 통해 ‘슬픔과 아픔을 넘어 이어져 온 죄악의 역사를 종결하고 인류의 참부모로서 결단하고 이루신 역사적 위업’에 대해 언급하시며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책임을 완수할 것을 당부하셨다. 이날 참어머님의 말씀을 요약·정리하여 소개한다. △세상에서 뒷자리에 책임을 진 사람이 밑바닥까지 내려오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요, 천지인참부모로 오신 재림메시아·구세주·참부모의 노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준비된 기독교 기반이 책임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중의 중’의 자리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섭리노정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참부모님께서 하늘을 위로하며 기필코 하나님의 꿈이요 소원인 뜻을 이루어드리겠노라고 다짐하셨습니다.

△1970년도만 해도 2차 대전 직후로 세계정세는 민주세계의 대표국가인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으나 시련이 왔습니다.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았고, 가정파탄과 극도의 개인주의로 청소년문제, 마약문제, 사상문제로 심각한 입장에 놓여졌다. 누구도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때 문선명 총재께서는 한국을 뒤로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이 병이 났으니 내가 의사로 왔다. 미국에 불이 나고 있으니 내가 소방사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을 일깨워서 결과적으로 공산주의의 몰락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또한 남미 전역의 공산화도 카우사(CAUSA)를 세워 교육하며 그 나라들을 구했습니다. 세상이 하지 못한 일을 참부모이시기에 결단하고 행하신 것입니다.

‘아버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그 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와 지구의 미래를 염려하시며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1981년 국제과학통일대회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세계평화고속도로의 건설을 제창하셨습니다. 아프리카 희망봉에서 유럽대륙과 아시아를 거쳐 해안과 반도를 지나 남미의 칠레 산티아고까지 가는 길입니다. 또한 알래스카 배링해협 터널도 말씀하셨고, 한일해저터널을 통해 일본열도와 대한반도로 연결하여 세계가 하나 되는 길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이번 성화 3주년에는 전세계 121개국이 동참하는 피스로드 대장정을 무사히 완성시켰습니다.

△100년 전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대한민국을 찬양했습니다. ‘코리아 그 이름은 아시아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경제가 아시아의 등불은 아닙니다. 등불은 빛을 말합니다. 빛은 진리이며, 진리는 말씀입니다. 참부모님의 가르침으로 이 대한민국이 아시아와 세계 앞에 우뚝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모인 여러분은 아버지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님! 이제 이후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기필코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본향원에서 외로웠던 하나님, 하늘부모님을 위로하시며 송영의 대상으로 자유로워지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계 앞에 보여주고 책임 해야 될 심정문화의 기치이며 깃발이며 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도 나와 같은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4면에 계속)



1. 천주성화 3주년 기념식에서 말씀하시는 참어머님
2. 기념사를 하고 있는 문선진 세계회장
3. 사회를 하고 있는 유경석 공동실행위원장
4. 보고기도를 하고 있는 안준석 세계부회장

5. 추모사를 하고 있는 아노테 통 키리바시 대통령
6. 추모사를 하고 있는 이수성 전 국무총리
7.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양건 위원장 이름의 화환

우리 곁에 영원히 살아계신 참아버님

이날 기념식은 천주성화 3주년 조직위원회 유경석 공동실행위원장의 사회로 참부모님 헌화, 개식선언, 천일국가 제창,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안준석 세계부회장의 보고기도, 정원주 수석보좌관의 말씀훈독, 대표자 헌화, 문선진 가정연합 세계회장의 기념사,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아노테 통 대통령의 추모사, 기념영상 상영, 참부모님의 말씀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이어 송용천 일본총회장의 사회로 천주성화 3주년 기념 뮤지컬이 공연됐다.

이날 참어머님께서 말씀 순서에 앞서 좌정하신 자리에서 일어나 참석자들과 함께 '사랑해 당신을(아버님)' 노래 1절을 두 번 부르시며 참아버님을 그리워하는 이들의 심정에 불을 밝혀 주셨다.

문선진 세계회장은 기념사에서 "참아버님의 생애와 업적의 존엄성과 그 의미를 되새길 때 제 마음은 영원한 사랑과 감사로 가득하다. 참부모님께서 아무런 조건과 계산 없이 부모의 심정으로 참사랑을 인류에게 베풀었다."라며 참부모님의 숭고한 삶을 회고했다. 이어 "여러분 마음속에 존재하는 성스러운 빛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희망과 꿈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문 세계회장은 참석자들에게 참아버님의 참사랑의 생애를 기리며 옆 사

람과 함께 큰 포용을 나눌 것을 요청한 뒤, "HUG의 H는 Harmony(화합), U는 Unity(통일) 그리고 G는 Goodness(선)·Gratitude(감사)·God(하나님)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하며 인사를 나눌 것을 부탁하면서 "참사랑을 실천하고 하늘부모님 아래 한 가족으로 생활할 때 참아버님께서 영원히 살아 계신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선진 세계회장은 "참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통일된 비전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복귀해야 할 사명을 완수합니다. Vision 2020을 승리하고 천일국을 완성합니다."라고 독려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 추모 메시지 소개, 이수성 전 국무총리 및 아노테 통 대통령 추모사

유경석 공동실행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보내온 추모 메시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양건 위원장의 이름으로 북한 정부가 전해온 화환을 소개하며 '천주성화 3주년을 계기로 한반도에 통일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내외 대표인사들이 참부모님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아 추모사를 했다. 먼저 이수성 전 국무총리는 추모사에서 "21세

기 들어서며 인류는 평화의 새 밀레니엄 시대를 소망해왔지만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 종교분쟁과 영토갈등, 테러 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도 수많은 갈등과 도덕적 타락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안타까운 뉴스를 접할 때마다 문 총재님의 존재가 귀하고 귀하게 느껴진다. 총재님께서 누구보다도 지구촌의 평화와 공생·공영·공의를 위해 헌신하고 진력해오셨다."며 참아버님의 섭리적 경륜과 업적을 칭송했다.

이어 "문 총재님의 빈자리가 워낙 크고 허전한데도 의연히 유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신 한학자 총재님께 경의를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하늘나라에 계신 문 총재님의 값진 영생과 한 총재님의 큰 성취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에 오른 선학평화상 공동수상자인 아노테 통 키리바시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문선명·한학자 총재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비전은 인류와 후대를 위한 소망의 빛이다. 그 비전의 중심은 위하여 사는 참사랑이다. 문 총재님이 꿈꾸셨던 평화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제1회 선학평화상 공동수상자로서 문선명 총재님의 생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문선명 총재님의 유산은 한학자 총재를 통해 계승·발전해 나갈 것을 확신하다."고 말했다. (5면에 계속)

천주의 빛 참사랑의 참부모'

이에 앞서 가정연합 안준석 세계부회장은 보고기도에서 “참아버님께서는 생이 다하시는 그날까지 하늘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며 지구성 곳곳에 승고한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부모님을 향한 참부모님이 충효의 전통을 상속 받아 실제 천일국 창건을 향해 전진할 것을 결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였다.

이어 전 세계에서 발걸음해준 귀빈들과 통일가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모아 참석자 대표들이 헌화하였다. 헌화는 영·육계 참가정 대표, 세계정상 대표, 원로와 지도자 및 평화대사 대표, 세계 지도자 대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 외의 참석자들은 기념식 후 헌화하며 참부모님을 향한 그리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추모사 후에는 기념영상 ‘천주의 빛 참사랑의 참부모’가 상영됐다. 기념영상에는 ‘실체 천일국 시대, 천년바위처럼 영원히 살아 환한 빛으로 세상을 비추시는 참부모님의 천주성화의 과정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겨 있었다. 또한 천주성화 이후 Vision 2020을 선포하시고 실제 천일국 정착과 평화세계 실현을 향한 대장정을 진두지휘하시는 참아버님의 섭리적 발자취가 영상을 통해 식구들에게 전해졌다.

한편, 참어머님께서 말씀 후 단하로 내려가셔서 일본협회에서 천주성화 3주년을 기념하며 제작한 뮤지컬 ‘누구보다도 일본을 사랑한 사람’을 관람하셨다. 공연 후 하늘 섭리를 향한 중단 없는 전진을 다짐하는 도쿠노 에이지 일본회장 선창의 억만세 삼창으로 이날 기념식과 문화공연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한편, 조성일 가정연합 세계본부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식전 문화공연은 ‘2015 글로벌 탐견탐’의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200여 명의 글로벌 탐견탐은 참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새 에덴의 노래’와 ‘유레이즈 미 업(You Raise me up)’ 등을 불렀다.

이어 천주평화합창단(Universal Peace Choir) 공연이 이어졌다. 5대양 6대주의 350여 명의 글로벌 찬

양단과 천복궁교회의 천심성가대로 구성된 천주평화합창단은 참아버님 천주성화 3주년을 기념하며 참부모님 애창곡인 ‘아카토크보(고추잠자리)’, ‘아리랑’, ‘홀로아리랑’,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새롭게 편곡해 선보여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기쁨과 영광을 봉헌했다.

하늘 앞에 충효의 도리 다할 것 다짐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인천교구 조남문 동구교회장은 “벌써 참아버님께서 성화하신 지 3주년이 됐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참부모님의 생애도 하나님의 섭리사에서 보면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6천년의 복귀섭리역사를 종결 짓고 천일국을 열어주신 은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전했다.

대구교구 김창오 부교회장은 “참어머님과 더불어 ‘사랑해 아버님’을 부르며 전 세계 통일가는 심정적으로 더욱 하나 될 수 있었다. 혼돈과 어둠속에서도 생명의 빛은 드러나듯이 통일가는 분명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실제적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귀한 은사에 감사하며 한반도 통일과 신종족메시아 사명완수를 위해 전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제주교구 요시노 사유리 식구는 “너무나 참아버님이 그립다. 지난 3년 동안 아무 것도 해드린 것이 없어 송구한 마음뿐이다. Vision 2020의 승리를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며 중단 없는 전진을 하고 계신 참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세계에서 하늘부모님과 참아버님께서 편히 계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부교구 천복궁교회 고종우 권사는 “그리운 님을 여의고 시모살이 3년을 보낸 뒤, 죄인의 마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했다. 참어머님께서 따뜻하고 인자하신 미소로 맞이해주셨다. 이번 기념식을 통해 통일가 식구들은 참부모님과 하나 되어 천운의 승리 운세를 타고 천상천하 대전환의 계기를 맞을 수 있었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충효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기사제공: 기획홍보국>



1. '사랑해 아버님'을 부르시는 참어머님
2. 헌화하고 있는 세계 전·현직 정상들

3. 식전공연을 하고 있는 천주평화합창단원
4. 천주평화합창단과 기념식장 무대 모습

천주성화 3주년 기념 뮤지컬 '누구보다도 일본을 사랑한 사람'

용서와 사랑으로 일본을 축복해주신 참부모님과 세계섭리에 공헌한 일본교회의 발자취 담아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 기념 뮤지컬 '누구보다도 일본을 사랑한 사람'이 천력 7월 17일(양 8.30) 오전 10시 30분 천지인참부모님을 모신 가운데 그 무대를 선보였다. 이번 기념 뮤지컬은 용서와 사랑으로 일본을 품으시고 어머니 나라로 축복하시고 세계섭리에 공헌하게 하셨던 참부모님의 일본 대한 사랑과 세계를 위해 투입해오셨던 생애가 담겨 있으며, 천주성화 3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의 지원 아래 일본협회 뮤지컬 제작위원회가 제작했다.

제1막에는 하늘의 소명을 가슴에 품고 진리를 탐구하고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체험하시는 참아버님의 유학시절 모습이 그려졌다. 한편 1막 마지막에는 소년 아버님이 부른 솔로곡 '일본을 사랑한다'는 일본이 민족을 넘어 세계를 사랑하기를 바라는 하늘의 소망이 큰 울림이 되어 관객들에게 전해졌다.

제2막에서는 귀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유학 당시 독립운동에 참가했던 사

실이 드러나 경기도 경찰부에 수감되신 참아버님이 그려졌다. 모진 고문에도 의연하게 어떻게 일본을 용서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던 참아버님은 패전 이후 귀국하는 일본인을 돕는 인류의 참아버지로서의 깊은 심정을 표현했다.

제3막에서는 일본을 섭리의 중심국가로 세우시기 위한 참아버님의 기도, 일본으로의 첫 선교사 파송, 1960년대 일본의 사회상과 공산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일본을 구하기 위해 전개했던 승공운동 등 섭리사적 사건과 일화들이 배우들의 열연을 통해 감동적인 무대로 표현됐다.

제4막에서는 참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신앙의 전통을 지키며 원리적인 삶을 사는 일본교회 식구들과 이러한 정성의 토대 위에 일본을 찾아오셔서 축복해주는 참부모님의 섭리적 노정이 담겨 있다. 또한 몰이해와 박해 속에서도 섭리의 길을 꿋꿋이 걸으며 1990년대 중반 16만 명 교육과 한 일자매결연을 승리한 이후 어머니 나라의 위상을 정립해가는 일본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다. 제5막에서는 출연진의 솔로와 합창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머니 일본대회 승리, 22,200명 세계선교사 승리, 2000년 이후 참부모님의 승리적 노정 등이 영상을 통해 소개되고 마침내 참아버님께서는 '어머니 나라 선포'를 하셨다. 하늘의 승리에 사탄은 자연굴복하고 '위대하신 나의 참부모님'을 찬양했다. 지상에서의 사명을 승리하시고 성화하신 참아버님께서는 성화 후 식구들에게 참아버님과 일체를 이룬 참어머님을 모시고 전진할 것을 당부하시고 이어 참어머님을 모시고 '미래의 희망'을 다짐하는 것으로 뮤지컬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뮤지컬 '누구보다도 일본을 사랑한 사람'은 '내 모든 정성을 다하여'라는 주제로 주연급 배우 3인과 3차례의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남성 14명, 여성 24명, 어린이 9명 등 47명의 축복가정 1세·2세대들이 출연했다.☺

〈기사제공: 뮤지컬 제작위원회〉



1~4 기념 뮤지컬 '누구보다도 일본을 사랑한 사람' 공연 장면
5. 기념뮤지컬을 관람하고 있는 세계지도자들
6. 기념뮤지컬을 관람하고 있는 참가정

7. 기념뮤지컬 관람 후 역만세 삼창을 하는 장면
8. 기념뮤지컬을 관람하고 있는 참어머님

천주성화 3주년 기념 'World Summit 2015' 기념오찬

존경과 감사의 마음 담아 참부모님께 감사패·명예박사학위·예물 봉정



1. 니카라과 마나과 국립과학대학교 인문학 명예박사 학위 봉정
2. 감사패를 봉정 받으시는 참여머님
3. 참여머님과 파라과이 프랑코 전 대통령
4. 가족대표로 인사를 하는 문훈숙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5. '선 무용단'의 '태평무' 공연 장면

'World Summit 2015 기념오찬'이 천일국 3년 천력 7월 17일(양 8.30) 오후 12시 30분 참여머님을 모시고 참가정과 해외 전·현직 국가수반, 정치, 종교, 경제, NGO, 여성 지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소재 천정궁 박물관 연회실에서 열렸다.

참여머님 뜻 받들어 서로 협력해 평화세계 건설해야

문훈숙 이사장은 가족대표인사에서 "오늘은 문선명 총재님의 천주성화 3주년을 기념일이며, 3년간의 시묘정성이 끝나는 날이다."라고 밝힌 뒤, "문 총재님께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오셨다. 또한 따뜻한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품어주시며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고 전했다.

이어 "문 총재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크게 감동하게 된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은 문 총재님의 위하여 사는 삶과 비전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류의 오랜 염원인 평화세계 건설을 위해 서로 존중하며 협력해 나가기 바란다."고 부탁하며 기념식과 기념오찬에 참석해 준 지도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기념오찬은 토마스 윌시 UPF 세계회장의 사회로 제시 에드워드 미국 종교지도자협의회(ACLIC) 회장의 보고기도, 문훈숙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의 가족대표인사, 영상시청, 명예박사 학위 증정식, 김기훈 북미대륙회장의 승리제의, 오찬, 존 두리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추모인사, 문화공연(바이올린 연주, 성악, 한국전통무용 태평무), 폐회선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제시 에드워드 ACLIC 회장은 보고기도에서 "이 땅 위에 참부모님을 보내 주시어 축복을 통해 지구성을 이해와 사랑으로 연결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경, 종교, 인종, 문화, 언어의 벽을 넘어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주신 참부모님의 가르침과 생애전통에 따라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

서."라고 간구했다.

한편, 기념오찬 참석자들은 참부모님께서 하나님 해방과 인류구원 그리고 평화세계 실현을 위해 걸어오신 생애 발자취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은 '글로벌 평화공동체의 새 길' 영상을 시청했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로부터 감사패 및 예물 답지

오찬은 김기훈 북미대륙회장의 승리제의로 시작됐다. 존 두리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은 추모인사에서 "문선명 총재의 리더십을 진심으로 깊이 존경해왔다. 특히 미국에서 펼치셨던 평화운동에 깊은 공감하며 지지해왔다."고 밝힌 뒤, "물문교도로서 그 비전에 대해 여러분과 깊은 공감을 하며 문 총재님이 여기 이곳에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선학평화상 시상식과 천주성화 3주년 기념식을 통해 문선명 총재의 유업을 계승·발전시켜 나가시는 한학자 총재님의 진심어린 마음과 실천에 감동했다."는 행사 참석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기념오찬에서 니카라과 마나과 국립과학대학교 네하마 베그만 파디자 총장이 참여머님께 명예인문학박사 학위를 봉정했다. 베그만 총장은 '구소련으로부터 위협을 받던 니카라과를 위해 문선명·한학자 총재 양위분께서 펼치신 카우사(CAUSA)운동의 사회적·역사적 가치를 최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특히 세계적인 여성평화운동을 주도하고 계신 한학자 총재님의 공로를 높이 평가, 이번에 명예박사 학위 수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워싱턴타임스 의회 대표단이 감사패를, 도미니카공화국 국회의원 전원이 사인한 감사장을 참여머님께 봉정해 올렸다. 또한 스리랑카 탐 대학 시젤다 대학교 밀라타 총장이 참여머님께 예물을 봉정했다. 이날 문화공연으로 바이올리니스트 우예주의 '지코이네르바이젠'의 연주를 시작으로 러시아에서 온 Jamie Bear Peterson은 'Morning of an Age'와 'One World'를 노래하였고, 마지막으로 '선 무용단'의 '태평무'가 펼쳐졌다. 'World Summit 2015 기념오찬'은 문화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천주평화연합의 창설자이신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3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천력 7월 14일(양 8.27) '평화, 안보, 인류발전'을 주제로 개막한 'World Summit 2015'에 참석한 지도자들은 이날 오전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개최된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기사제공: 기획홍보국)

참부모님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 속에 진행, 역대 최대 연인원 4만2천여 명 참석



1. 특별집회에서 말씀하시는 참어머님
2. 참부모님의 청평수련원 방문을 환영하고 있는 식구들
3. 청년학생세계총회에 참석한 문선명 세계회장 내외
4. 특별대역사 기간 말씀하고 있는 문연아 여성연합 세계회장

5. 청년학생세계총회에 참석한 청년학생들
6. 찬양영분립을 하고 있는 식구들
7. 조상축복식 후 가진 단체 기념촬영과 성혼문답을 하고 있는 유경석 회장 내외

‘2015 하계 청평특별대역사(이하 하계대역사)’가 천력 7월 15일부터 17일까지(양 8.28~30)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역대 최대 인원인 연인원 4만2천여 명의 식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하계대역사는 참아버님 천주성화 3주년 기념과 더불어 열리게 되어 그 의미가 특별했다. 참부모님 특별집회, ‘2015 청년학생세계총회’, 소원성취기도회, 성지순례 이벤트, 조상해원식 및 조상축복식, 소원성취기도회, 성물추첨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어느 때보다 하늘의 은사와 새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했다.

참부모님과 참가정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

하계대역사 둘째 날인 천력 7월 16일(양 8.29) 오후 9시, 1-273대 조상축복식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경석 한국회장 내외의 주례로 천성왕림궁전에서 성대히 거행됐다. 이날 축복식에는 영계 홍진님 수련원에서 100일 수련을 통해 변화된 조상들과 그들의 후손인 6000여 명의 세계 각국 식구들이 참석했다.

전날 오후 8시 천주청평수련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5 청년학생세계총회 개회식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문선명 세계회장이 참석해 “천주성화 3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는 진실한 마음과 심정과 영혼으로 참부모님의 전통을 상속받고 미래 세대에게 영구적 유산을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뒤, “젊은 청년으로서 어떻게 하면 항구적인 평화의 세계를 이룰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각자의 가능성과 재능을 발견하여 평화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평화여성연합 문연아 세계회장은 하계대역사에 참가한 식구들에게 참부모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며 느낀 내용을 간증했다. 문연아 세계회장은 “헬기사고를 당하신 후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던 참어머님께서 ‘하루 빨리 나아가서 참아버님을 모셔야 된다. 참아버님께서 저렇게 쉬지 않으시는 데, 나까지 누워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육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셨다.”고 증언하며 참어머님의 절대적인 신앙과 심정 기

준을 증거했다. 이러한 참부모님과 참가정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천주청평수련원을 찾은 식구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복귀된 에덴동산에서 영과 육의 치유를 받는 식구들은 중생과 부활의 은사를 느끼며 감사와 송영을 하늘에 올렸다.

출발감사기도회의 첫 은혜

출발 감사기도회는 하계대역사 첫날인 천력 7월 15일(양 8.28) 오전 6시 30분 천종관 홍진님과 대모님을 모신 가운데 정심원에서 진행됐다. 전날부터 세계 각국에서 청평 성지에 찾아온 식구들로 인해 정심원은 만장의 성황을 이루었다.

정심원 안에는 홍진님과 대모님 존영 사이에 새로 모신 효진님 존영이 식구들의 눈길을 끌었다. 참부모님께서는 ‘효진이는 가인 아벨의 탕감복귀를 승리한 효자요, 충신이다. 통일가의 모든 식구들은 효진이와 홍진이가 걸었던 길을 본받아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내려 주셨고, 이에 정심원에 효진님 존영을 모시게 된 것이다.

출발감사기도회에서 이기성 천주청평수련원장은 “참아버님 천주성화 3주년 기념과 더불어 ‘2015 하계 청평특별대역사’의 출발기도회를 거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상에 오르신 참어머님께서 절대선령들을 거느리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땅에서는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전 세계의 지도자와 중심식구들과 통일가의 미래에 희망인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새 출발을 다짐하는 대역사를 실시하오니 천상세계와 지상세계가 함께 공명하는 진정한 천일국의 성령역사가 이번 대역사의 기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성가 6장 ‘성원의 은사’를 부른 뒤 통성기도를 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청평 성지를 찾아온 세계 각국 식구들의 기도가 정심원에 크게 울려 퍼졌다. 이날 출발기도회는 이명관 부원장 선창의 억만세 삼창으로 마무리되었다.(9면에 계속)

특별대역사의 은사 조상축복식으로 이어져

참부모님께서 신종족메시아의 사명완수와 선한 영계권의 확대를 위해 강조하신 가운데 2015 하계 청평특별대역사 기간 둘째 날 오후 9시 천주청평수련원 대강당에서는 1대부터 266대 조상축복식이 거행됐다. 천지인참부모님을 대신하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경석 회장이 축복식을 집례했다.

연일 늦은 밤까지 강행군되는 다양한 대역사의 프로그램에도 식구들은 한결 같은 열정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늘이 내려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 대성전은 조상축복식을 위해 참석한 축복가정들로 빈틈없이 가득 메워졌다.

유경석 회장은 주례사에서 “천상의 참아버님과 지상의 참어머님께서 하나가 되시어서 천상과 지상에 천일국을 실현하시는 섭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축복가정과 식구들은 이를 육안이 아닌 심령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참부모님의 위대한 승리의 전통을 상속 받아 Vision 2020을 성취하는 자랑스러운 하늘의 자녀가 되고 참부모님과 일심·일체를 이루어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축복가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이에 앞서 이기성 원장은 보고기도에서 “승리하신 천지인참부모님의 한량없는 감사함과 천총관 홍진님과 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의 정성으로 축복식에 참석해 감사함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전수받아 하늘의 자녀, 절대선령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복받는 조상님들이 하늘의 섭리에 협조하며 크신 은사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다.

천주성화 3주년 맞아 더 큰 영적 역사

부모님께서 하계대역사에 참석한 식구들을 위해 귀한 성물 190여 점을 내려주시어 성물추첨이벤트가 열리게 됐다. 이번에 내려주신 성물은 지난 대역사보다 2배나 많았다. 참부모님께서 청평대역사에 참석한 식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대역사 기간, 대모님기도실기도회는 하늘이 허락하신 특별한 은사 가운데 회개의 뜨거운 눈물과 새 출발을 다짐하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또한 소원성취기도회를 통해 식구들은 개인의 꿈만이 아니라 하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충효의 삶을 살 것을 결의했다.

금번 하계대역사에서는 천주성화 3주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찬양의 은사가 충만했다. 참부모님께서 천상과 지상에서 일체가 되시어 주관하시며, 영계의 참가정과 4800억 절대선영들이 함께

역사하는 대역사를 통해 식구들은 영육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

특별대역사 기간에는 하루에 세 번씩 찬양이 진행되었으며, 식구들은 타락성을 하나라도 더 벗기 위해 땀을 흘리며 큰 소리와 힘찬 박수로 찬양역사에 동참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식구들이 동시에 치는 박수는 대역사 내내 청평 성지를 크게 울렸다.

참부모님의 심정과 참사랑을 상속받는 ‘천운상속 성지순례’에 대한 식구들의 관심과 참여가 대역사 기간 계속됐다. 일본 아다치 교회의 히구치 히데키 성화청년부장은 “1996년에 40일 수련을 받으며 매일 올라가 기도드린 것이 생각나 오랜만에 천승대에 올랐다. 그런데 특별한 느낌을 받았고, ‘참부모님께서 천승대에서 정성을 많이 들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번 대역사 기간에는 청평 성지 전체가 기도실과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천주성화 3주년 의미 새기는 3일 노정

아이치 현 평화통일연합(FPU) 유영하 사무국장은 “참아버님의 천주성화 3주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3일 노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대역사에 참가했다.”고 밝힌 뒤, “청평은 식구들에게 심정의 고향이다. 복귀된 에데동산인 청평에서 모든 식구들이 다시 한 번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출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5 글로벌 탐진 수련’을 수료한 뒤 바로 대역사에 참석한 이바 세이고 선문대 학사장은 “대역사 이전에 ‘글로벌 탐진 수련’을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섭리해 오신 참부모님의 위대함에 다시 한번 희망을 느끼게 되었다. 공직자로서 더욱 악령을 분립해서 자신의 타락성을 벗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역사에 참여했다. 참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보다 더욱 많은 것을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하계대역사에 참석한 일본 키타치바 교구 후나바시 교회의 와타나베 요시히코(36만 가정) 식구는 “2020년까지 430가정 축복을 완료하여 신종족메시아 사명을 완수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기 위해 대역사에 참가했다. 먼저 하늘이 원하는 가정을 이루고 그 기반 위에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 섭리의 기여하여 하늘 앞에 충효의 도리를 다하는 축복가정이 되겠다.”고 결의했다.

이번 특별대역사는 통일가의 모든 식구님들이 험난한 어려움 속에서도 청평에서 하나가 되어 험산준령을 넘어가며 심정적으로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은혜의 수련이었다.☺

〈기사제공: 천주청평수련원 홍보출판팀〉



1. 간절한 염원을 담아 기도하고 있는 식구들
2. 소원성취 기도회 전경
3. 정심원 앞에서 밝은 표정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는 식구들
4. 천운상속 성지순례에 참여한 식구들

5. 성물추첨이벤트에 당첨된 식구들과 기념촬영
6. 찬양영분립을 하고 있는 식구들
7. 말씀하고 있는 이기성 천주청평수련원장과 특별대역사 전경

2015 청년학생세계총회 폐회식, 유경석 한국회장·송용천 일본총회장 격려사



2015 청년학생세계총회 폐회식 전경과 격려사를 하고 있는 유경석 한국회장과 송용천 일본 총회장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경석 한국회장과 송용천 일본총회장은 천력 7월 16일(양 8.30) 전주청평수련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5 청년학생세계총회 폐회식에서 전주 성화 3주년을 맞아 전 세계의 통일가 미래세대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모인 청년, CARP, 성화학생 리더 3천5백여 명에게 격려사를 했다. 유 회장과 송 회장의 격려사를 요약·정리하여 소개한다.

유경석 회장, '실질적인 미래의 주인' 뜻 되새겨

사랑하는 통일가의 청년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까? 아마도 지금까지의 삶을 결실하고 또 다른 출발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봅니다.

오늘 폐회식에서 참여머님께서 하신 첫 말씀은 '실질적인 미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당부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주인입니까? 왜 참여머님께서 여러분에게 첫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청년학생, 성화용사 3천5백 명이 천일국의 주인이 되기 위해 결의하며 하나가 된다면 미래 세계는 여러분의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참여머님의 말씀 속에서 총회 기간 동안 각자의 정체성을 찾는 소중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참여머님께서 통일가 청년학생들에게 항상 주시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계시겠습니까? 바로 미래 세대를 책임지고 가야 될 청년과 학생, 그리고 성화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참여머님께서 주신 말씀의 조건은 무엇이나 하면 미래 세계를 향할 수 있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참여머님이 계시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심삼고 뚜렷한 인생의 목표를 따라 살아간다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아니 50년 후에 인생을 정리하게 될 때 분명한 결실을 맺은 상태에서 지상세계를 정리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지어 한 말씀 더 드리면 젊은 청년들의 희망과 소망은 가슴으로부터 우리나라와야 됩니다.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한 진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슴에서 우리나라 오는 젊음의 열정은 우리의 삶을 보다 귀하고 영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참여머님의 소망과 희망을 갖고 열정을 투입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면 오늘 참여머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참여머님을 닮은 사랑의 화신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머님을 닮은 화신체

가 되어 강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인생을 개척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송용천 회장, 청년에 대한 참부모님의 사랑과 소망

천지인참부모님을 모시고 전 세계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되는 감동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참부모님의 위대하심과 그 업적 상속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은사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비록 피부색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 아래 한 가족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천주성화 3주년을 기념하며 선학평화상 시상식 등 많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중에서 하늘부모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쁘고 중요한 자리가 바로 여러분과 함께한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께서 하늘부모님께서 청년이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기는 일생 중 가장 창조본성과 가까운 때이며, 청년에게는 자기보다는 남을 위해, 나보다 우리를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참여머님께서 청년을 만날 때마다 온갖 정성을 투입하며 밤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쁜 섭리 중에도 젊은이들을 귀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청년들이 잘 성장해 미래의 지도자로 나타나기를 열망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참여머께서는 성화학생원리연구회, 대학원리연구회, 청년연합 등을 창설하셨습니다. 그것은 참여머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년간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바로 청년들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참여머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젊은 나이에 하늘의 소명을 받아 복귀섭리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누구보다 큰 꿈을 갖고 더 열정적으로 생활하시며, 어떤 도전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피하지 않고 부딪치고 넘어 승리해오셨습니다. 이러한 참여머님과 같은 삶을 지금 참여머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대성전 뒤에 설치된 각국 청년학생들의 활동 홍보부스를 보며 여러분의 가능성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짧은 총회 시간에 국경, 언어, 문화의 차이를 넘어 하나 된 여러분은 통일가의 자랑이요 희망입니다.

참여머님을 만난 여러분은 반드시 나라와 세계를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비전을 품고 국가와 세계를 새롭게 할 미래의 주역들입니다. 하늘이 바라시는 천일국 시대를 열기 위해 참여머님과 영원히 함께 섭리의 길을 걸으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